

□강연초록·'명백하고 현존하며 절박한 위험'

억압된 문화검열에 돌을 던져라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우리사

회의 현실을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각 예술분야에서

행해지고 있는 '검열'을 타개할 방안을 모색...

‘당 신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문화검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몇 달동안 신문지상의 화두가 되었던 정책당국의 문화검열은 이제 국민의 관심 대상 중 하나가 되었다. 정책당국의 검열에 의해 많은 만화와 영화를 비롯한 대중매체가 가위질 당하고 있는 것이 우리사회의 절박한 모습들이다. 내용이 천박하고 선정적이라는 이유로 검찰에 구속소된 이현세의 '천국의 신화'는 최근 검열에 대한 정책당국의 입장을 여실히 보여주는 한 예이다. 영화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작거나 감독이 아닌 심의기관에 의해 작품이 잘려나가는 것은 선진국의 경우를 비취볼 때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영화검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영화상영권이 공영윤리위원회(이하 공윤)의 심의를 사전에 받아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처벌을 받으며, 심지어 공윤이 삭제권까지 갖는, 그래서 언론 출판에 대한 검열(사상 의견 등이 발표되기 이전에 국가기관이 그 내용을 심사 선별하여 일정한 사상이나 의견의 표현을 억제하는 제도)을 인정하는 구 영화법과 영화진흥법의 규정은 위헌이

다"라는 역사적 판결을 내렸다. 한마디로 '공윤의 심의행위는 헌법위반이다'라고 할 수 있다.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검열의 주된 목적은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이다. 많은 문화를 향유하는 대다수 청소년들이 다양한 매체를 접할 경우 탈선과 성폭력이 증가 한다는 것이 기성세대들의 입장이다. 이렇듯 우리사회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검열문제에 대해 우리학교는 지난 27일부터 3일간 중앙도서관 시청각실에서 '명백하고 현존하며 절박한 위험'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 인권복지위원회가 주최한 이번 강연에서는 유지나, 마광수, 정지영씨 등이 나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을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각 예술분야에서 행해지고 있는 '검열'을 타개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강연은 현 검열제도와 기관들의 잣대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첫 번째 강연은 유지나씨의 '공권력의 영화검열, 영화장자의 자기검열'을 두 번째 강연은 마광수씨의 '외설은 없다' 그리고 마지막날은 정지영씨의 '영화의 심의제도의 위헌성과 문제점'이라는 각자의 소주제를 가지고



▲경희 강좌 둘째날 마광수씨가 강연하는 모습

학생들과 같이 뜨거운 논쟁을 펼쳤다. 특히 두 번째날은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물려와 마광수씨의 인기를 실감케 했다. 유지나씨는 검열과 심의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표현의 자유와 심의 검열은 거시적인 안목에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현사회의 검열을 '자본주의 속에서 도(道)를 닦는'다는 말로 표현해 많은 학생들의 공감을 얻었다. 이는 정지영씨도 마찬가지였다. 한국영화의 검열문제는 애기를 해도 끝이 없다는 말을 시작으로 너무 무원칙한 검열제도를 하루 빨리 벗어던지고 표현의 자유가 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대중들이 '나는 아닌데 다른사람이 보면 위험하다'라는 제3자효과와 가설의식이 퍼져있어 안타깝다는 말을 덧붙였다. 둘째날 마광수씨의 강연때에는 많은 학생들이 참여했다. 지난 92년 '출거은 사라'라는 소설이 외설이라는 심의를 받아 대중들의 이목을 받아서 그런지 학생들의 관심은 대단했다. 마광수씨는 "문학은 금지된 것에 대한 도전이고 상상력의 모험이다. 그리고 소설이 꼭 모범적인 이상형을 제시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사라의 경우가 그렇다"며 '외설'의 시각을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학생들과 마광수씨와의 논쟁은 다른날보다 뜨거웠다. 언제 어디서 또다시 터질지 모르는 문화검열, 기존의 것만을 지키려는 기성세대들에게 우리는 돌을 던져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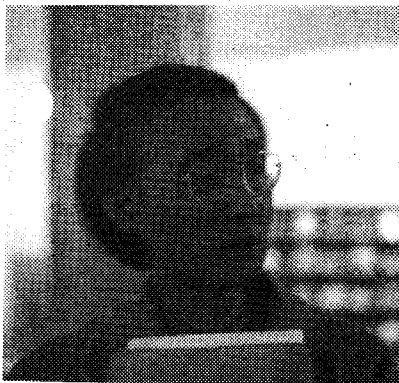
한다. 표현의 자유가 확립된 돌을... 그리고 표현의 자유가 확립된 대중문화에 대해 우리의 입장이 확고해야 할 것이다.

〈김동혁기자〉

□인터뷰-마광수씨

강연을 끝마치기 전에 학생들에게 심정했다고 말했는데...

다른데에서도 강연을 했지만 그곳 학생들과 다를바가 없었다. 적잖은 실망감을 느꼈다. 너무 엘리트주의의식이 강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청소년



들을 걱정하는 태도를 많이 보였는데, 우리사회는 이런게 문제다. 항상 남을 걱정한다.

시, 소설, 에세이, 논문, 그림 등을 통해 관습과 통념에 대한 줄기찬 반란을 시도했다는 평을 듣고 있는데...

통념은 단순한 흑백논리 일뿐이다. 이런 사회 통념의 혼란을 뒤집어야 했기에 글로써 혼란을 주었다. 그러나 이런 나의 생각들이 반영되지 않아 한 국사회의 많은 실망을 했다. 그리고 나는 작품을 쓸때에는 고민을 많이 한다.

앞으로의 계획은... 얼마 안있으면 '사랑의 슬픔'이라는 시집과 '자궁속으로'라는 소설이 나오게 된다. 이 책들도 과거 광미일기, 카타르시스란 무엇인가, 운명 등의 책들과 마찬가지로 학생과 대중들에게 많은 호응을 보였으면 좋겠다. 앞으로 지금과 같은 주류의 글들을 많이 쓸 생각이다.

캠퍼스 예술인

□조선일보 광고전 수상

김태희, 류정원, 박진규(미교 3)

사범대 2층 디자인실에 발걸음을 처음 들여 놓았을 때에는 지저분함 그 자체였다. 온통 너저분한 붓들과 물감들이 어지럽게 놓여있었다. 이곳에서 작업하고 있는 김태희, 박진규, 류정원(미교3)을 만나보았다. 이들은 '제3회 조선일보 광고 대상전' 신인부문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광고는 종합적인 공부라는 생각만을 하고 있어요. 특히 공모전은 아이디어부터 실무제작까지 모든 작업을 직접해야하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죠. 그래서 이번 수상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여러 광고전에 참가할 생각이예요. 지금도 벌써 다른 작품을 준비하고 있어요."라며 수상소감을 웃으며 말한다.

출품 한달전부터 기획에 들어가서 실무제작에 이르기까지 걸린 시간은 일주일정도, 필름을 통제로 잃어버리기도 하고, 컴퓨터 작업이 맘에 들지 않아 재작업을 하는 등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지만, 고생



▲왼쪽부터 김태희, 류정원, 박진규

스러운 기억도 훌륭한 성과 앞에서는 좋은 추억일 뿐이었다고 밝혔다.

"이번 광고는 깨끗함에 중점을 두었어요. 이것을 생각하다보니 얼음이라는 아이디어가 떠올랐고, 이를 소주에 적용시켜 얼린 소주라는 컨셉을 생각해 내게 됐어요. 모든 과정에 최선을 다했어요."

이번 공모전은 총 지원 작품이 대략 1천6백여점이나 되었고 그 중 11개 작품만이 본상을 받았다. 이렇게 받기 힘든 상을 탄것은 아마 그들의 따고 노력의 결실이었을 것이다.

"특히 작품 기획 단계부터 실무 제작까지의 과정을 곁에서 지켜보고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나게 한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는 말을 덧붙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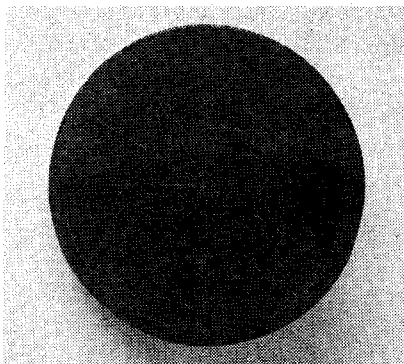
디자인전공에 대한 재정지원을 많이 해주었다는게 이들의 바램이다. 아직은 부족한 작업환경에서 이들은 서로의 다른 목표아래 오늘도 열심히 작업에 열중하고 있을 것이다.

〈김수란기자〉

시리즈-경희유산을 찾아서

⑬ 정보화 속의 경희와 해시계

새로운 정보를 창조하고
확장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현재 좌표에서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는 것도
필요하다



▲조선시대 해시계

시계(時計)는 사시사철과 세월을 뜻하기도 한다. 본교 중앙박물관에는 해의 그림자로 시간을 알 수 있게 한 조선시대의 해시계(日晷, 日影)를 소장하고 있다. 해시계는 둥근 원판 가운데 막대를 꼽거나 기호를 표시하여 시간을 알아보는 기구로 태양계 내에서 지구의 자전과 보이지 않는 시간의 흐름을 시각화한 정보상품의 하나이다. 또한 조선 효종때부터 사용된 시헌력(時憲曆)은 태음력에 태양력의 원리를 결합시켜 24절기의 시작과 하루의 시간을 계산한 것이다. 서울캠퍼스 중앙도서관 복도에 있는 두개의 대형시계는 경희학우들의 미래를 알려주는 지표가 되고 있다.

현재 경희학교는 PC통신 채택수업을 국내 최초로 시행하고 있으며 원격

수업을 통한 전국대학 연합강의와 사이버파크 개관 등으로 정보화 교육의 선두를 달리고 있다. 이번 만 아니라 경희에는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가 지구촌의 정확한 정보를 입수, 분석, 연구하기 위한 산업정보대학원(1987. 11. 9.), 현대사회에서 의사소통의 도구인 정보커뮤니케이션 매체의 교육과 사회적 의미의 연구를 위한 정보사회언론정보대학원(1989. 3. 1.), 정보와 통신공학 기초연구에 관련된 사항을 연구하는 정보통신공학연구소(1992. 12. 1) 등이 있다. 또한 산학협동 공동 연구소로 정보사회에 적합한 새로운 미래형 첨단 교육모델의 구축을 통해 21세기 정보화사회의 주역이 될 인재를 양성하고 정보사회의 제반문제를 연구하고 실천하는 정

보사회 연구소(1995. 11. 23.) 등도 있다. 이러한 선구자적인 노력과 준비 속에서 경희는 국내 유수의 16개 대학의 연구원들로 구성된 국내 최고 수준의 LCD (모든 영상정보의 전달을 가능하게 하는 품목)거점 연구단으로 설정되었다. (10. 13)

다가오는 21세기는 정보문화의 시대이다. 새로운 정보를 창조하고 확장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현재 좌표에서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는 것도 필요하다. 인간 생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꿈을 함께 가져다 줄 수 있는 새로운 '문화의 시계'를 만들기 위해서 경희는 더욱 더 전진해야 할 것이다.

오 일 환 〈중앙박물관 연구실〉

문화단신

경희극예술연구회의 '허' 수원캠퍼스 연극동아리 경희극예술연구회는 오는 3월(4시), 4월(6시) 심재호의 연출로 정기공연을 갖는다. 37회를 맞는 이번 공연의 작품명은 '허'로 언론, 법조인, 대학 등의 객체가 자신의 야망을 위해 한 개인을 무참히 짓밟는 우리 사회의 모습인 모습을 그린 작품이며 공대 시청각실에서 공연된다. 또한 오는 8월 4시 해화동연우소극장에서 공연될 예정이다.

Naked 정기공연 서울캠퍼스 그룹사운드 Naked는 오는 5월 복지회관 1층 공연장에서 제11회 정기공연을 갖는다. 이 공연에서 Naked는 '나를 슬프게하는 사람들', 'Betty' 등의 널리 알려진 곡들을 선보일 예정이며 공연 시작 시간은 오후 6시 30분이다.

One & Only

보는 눈이 다르면 미래가 달라진다.

보다 멀리 볼 줄 아는 기업이 있습니다.

오직 최고를 향하여 변화와 도전정신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40년 역사를 바탕으로, 코오롱은 더 큰 도약을 위해

이미 과천 신사옥을 완공하였고, 첨단 섬유공학.

정보통신, 유통, 레저 등 미래산업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개발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21세기를 향한 진보적인 꿈을 키워가는 사람들-

그곳에 코오롱이 있습니다.

The future together